



류현진



커쇼



그레인키

LA다저스 5년이상 '황금 트리오'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와의 장기 계약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5년 이상을 이끌 황금 선발 트리오를 완성했다.

다저스는 2014년부터 7년간 2억 1500만 달러(약 2289억원)라는 거액을 제시해 커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1년, 2013년 두 차례나 최고 투수의 영예인 사이영상을 받고 2011년부터 3년 내리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1위를 휩쓴 커쇼를 다저스가 합당하게 대접한 셈이다.

일찌감치 연봉 3000만 달러 시대를 개척할 투수로 불려온 커쇼는 이번 장기계약으로 해마다 평균 연봉 3070만 달러를 손에 쥔다. 커쇼와의 계약을 매듭지은 다저스는 이미 다년 계약한 잭 그레인키, 류현진과 더불어 5년 이상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 선발진을 구축했다.

그레인키와 류현진은 FA 신분으로 지난해 다저스와 각각 6년간 1억 4700만 달러, 36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세 투수의 재능과 나이를 고려할 때 다저스는 당분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막강한 선발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왼손 투수 커쇼(26)와 류현진(27)은 선수 인생의 전성기를 앞두고 있고, 그레인키(31)는 완속기에 접어들었다. 완투 능력을 지닌 세 투수는 모두 선발로 7이닝을 버틸 만한 강한 어깨를 지녔다.

또 한 시즌 15승씩 올려줄 만한 승리의 보습수표이기도 하다.

'사이영상' 커쇼와 7년 계약

그레인키·류현진과 1~3 선발

다년 계약 완료...최강 선발진 구축

다저스 선발 트리오 연봉-성적 비교



도 하다. 셋 중에서 가장 어리나 가장 화려한 이력을 쌓은 커쇼는 명실상부한 다저스의 1선발이다.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으로 뛴 지 5년 만에 그는 다저스의 전설 좌완 샌디 쿠팍스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성장했다. 특히 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팀에 강한 모습을 보여 다저스를 포스트시즌으로 이끌 핵심 선수로 평가받는다. 셋 중에서 경험이 제일 풍부한 우완 그레인키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에서 뛰던 2009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받았다. 다저스와 계약한 첫해 경기 중 집단 몸싸움으로 영구타석 기록을 잃고 15승을 올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빠른 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던지는 그레인키는 커쇼와 최강의 원 투 펀치를 형성했다.

한국프로야구에서 미국으로 곧장 건너간 '메이드 인 코리아' 류현진은 첫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3선발을 꿰찼다.

다양한 국제 대회에서 배짱을 키운 그는 14승을 수확하고 다저스의 지구 우승에 큰 힘을 보탤다. 빅리그 2년 차인 올해 시차 문제만 해결한다면 두자릿수 승수, 2점대 평균자책점이라는 진화할 성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세 투수를 1~3선발로 고정한 다저스는 베테랑 우완 앤 해런을 영입해 올 시즌 4선발로 기용할 전망이다.

이규혁·김현영도 '소치 리허설'

18~19일 日 나가노 스프린트 세계선수권 출전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말뚝' 이규혁(36·서울시청)과 기대주 김현영(20·한국체대) 등이 일본에서 '소치 올림픽 전초전'에 나선다.

이규혁과 김태운(20·한국체대), 김현영, 박승주(24·단국대)는 오는 18~19일 일본 나가노에서 열리는 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프린트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스프린트 세계선수권대회는 출전 선수들이 이를 동안 500m와 1,000m를 각각 두 차례 달린 기록을 점수로 환산, 합산이 낮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지난해 대회에서는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가 이를 연속 1,000m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선전을 펼치며 종합 3위에 올랐고,

남자부에서는 모태범(26·대한항공)이 5위에 자리했다. 올해는 이상화와 모태범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출전하지 않지만, 올림픽에 나설 다른 국가 대표 선수들의 면면을 볼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 선수 최초로 통산 6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규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올 시즌 월드컵의 부진을 씻어내고 기본 종계 소치로 향한다는 각오다. 그는 이 대회에서 2007, 2008, 2010, 2011년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특히 자신의 5번째 올림픽이었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은퇴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2011년 이 대회에 우승하면서 소치 올림픽까지 도전하는 원동력이 됐다. 김현영과 박승주는 지난해 이탈리아 트렌티노에서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여자 500m 금·은메달을 휩쓸며 저력을 뽐낸 바 있다. /연합뉴스

中 쇼트트랙 간판 스타 왕멍 발목 골절...소치 출전 불투명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중국의 간판스타 왕멍(29)이 훈련 도중 심하게 다쳐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신화망(新華網) 등 중국 매체들은 16일 왕멍이 훈련 도중 오른 발목이 부러져 병원에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대표팀은 자세한 부상 원인과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상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은 왕멍이 상하이 현지에서 바로 수술을 받든지, 베이징으로 옮겨 수술대에 오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스프링 캠프 미루고 무릎 재활 KIA 최희섭

“믿음의 선수로 부활 팬 기대 응답하겠다”

KIA 최희섭은 팬들에게 애증의 이름이다.

V10에는 최희섭이 있었다. 김삼현과 무시무시한 중심타선을 구축하면서 우승을 일구어낸 든든한 중심타자, 한편으로는 이래저래 속을 썩이는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다.

작은 부상으로 2011시즌 이후 완벽한 시즌을 보낸 적이 없고 팀 무단 이탈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시즌도 기대로 출발해 실망으로 끝났다.

최희섭은 지난해 4월 한달 6개 홈런과 함께 24개 타점을 쓸어담으면서 부활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즌 중반 하락세가 이어졌고 원 무릎 통증으로 다시 중도에 자리를 비웠다.

아쉬운 이름이자 팀이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이름이 최희섭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희섭은 애증의 이름이다.

지난 15일 스프링 캠프가 시작됐지만 최희섭은 선수단과 함께 하지 못했다. 팀의 유일한 미계약자로 남아있는 만큼 최희섭과 팀의 불화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최희섭의 캠프를 막은 것은 연봉제 계약이 아니라 무릎이다. 무릎 재활이 끝나지 않아서



이 훈련이었다. 최희섭의 홈런소로 다저스가 4-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홈런은 승리투수가 됐다.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올 시즌 최희섭은 '포기'라는 단어를 지우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최희섭은 "지난 워크숍에서 소통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주장(이범호)과 감독님 선수들 모두 그런 부분에서 공감했다. 한마음을 이루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며 "KIA에서 8번째 시즌인데 그동안 팀이 항상 우승후보였다. 올 시즌 처음 우승후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이게 팀에 득이 될 수도 있다. 2009년에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시즌을 잘 마무리하지는 분위기가 됐는데 (김)삼현이와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하면서 성적을 냈었다. 올해는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팀이 되면 좋겠다. 서로 믿고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잘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최선'을 말하는 최희섭이 애증의 이름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 호텔 무등파크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 (200명 이상) 뷔페 28,000 (부태(부가세 별도) 스테이크 33,000 (부태(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패백실, 음료, 주류

호텔무등파크 문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